

“통합 클라우드로 효율적 IT서비스 누리세요”

코스콤 R&D 클라우드 오픈행사…400명 참석 ‘성황’



- “통합 클라우드로 전산비용 절감 및 업무개선 효과를 누리세요.”
-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국내 첫 오픈소스 기반 통합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‘코스콤 R&D 클라우드 오픈행사’를 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‘코스콤 R&D 클라우드’는 서비스형 인프라(IaaS; Infrastructure as a Service)와 서비스형 플랫폼(PaaS; Platform as a Service)을 합친 통합형 클라우드 서비스로,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된다.
-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증권업계 CIO(최고정보관리책임자) 및 CISO(정보보호책임자), 기업 클라우드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클라우드 도입 환경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.
- 개회사에 나선 정지석 사장은 “정부와 민간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”면서 “이 자리가 4차산업혁명 시대, 클라우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”고 행사 시작을 알렸다.
- 이어 “40년 이상 자본시장 IT인프라를 책임져 온 코스콤은 공공과 자본시장에서 클라우드 생태

계를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에 착수했고 오늘 코스콤 R&D 클라우드를 오픈하게 됐다”면서 “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□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▲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-타의 미래 ▲온사이트(On-site) Private Cloud 구축 방안 ▲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(SDDC)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(SDN) 도입 방안 ▲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.

□ 특히 코스콤은 이 자리에서 보안에 민감한 계정계는 기존 레거시(Legacy) 시스템을 연동하고, 신속한 개발 및 배포가 필요한 정보계는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통적 IT와 클라우드 IT가 결합한 ‘기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’ 구축 계획을 발표, 눈길을 끌었다.

